

# 추억을 전하는 길

한림항 주변에는 옛 마을들의 이름을 가진 길들이 있다. 마을의 모습은 많이 변했지만 옛 이름들은 과거의 모습을 추억하게 한다. 구석구석 이어진 마을의 길에서 옛 이야기를 만나보자.



**한림중앙로** |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073 ~ 한림읍 동명리 365-2(약 2.9km)

**한수풀로** |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314-79 ~ 한림읍 귀덕리 146-4(약 3.4km)

**내동길** |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082-1 ~ 한림읍 한림리 1124-2(약 0.3km)

**사가길** |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352 ~ 한림읍 한림리 1323-4(약 0.2km)

**문화길** |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368-1 ~ 한림읍 한림리 1328-1(약 0.2km)

**한성길** |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392-2 ~ 한림읍 한림리 1201-3(약 0.3km)

**문교길** |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941-11 ~ 한림읍 한림리 1484-1(약 0.6km)

**한근길** |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473-2 ~ 한림읍 한림리 1594(약 1.4km)

**고도물길** |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475-1 ~ 한림읍 한림리 1377-48(약 0.2km)

## 한림중앙로 / 한수풀로 | 한수풀

한림중앙로는 한림리의 중앙을 지나는 길이다. 옛날 한림리 일대는 많은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어 큰 숲이라는 뜻의 한수풀이라고 불렸다. 크다는 의미의 ‘한’과 덩불을 의미하는 ‘수풀’을 합친 말이다. **한수풀로**는 이러한 한림의 옛 지명을 반영한 이름이다. 한수풀은 한자로 표기되면서 대림(大林)이라 했다. 이후 대림리 서쪽에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숲이 많다는 뜻의 다림(多林)이라고 하다가 한림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선비를 많이 배출했다는 의미로 한자를 한림(翰林)으로 사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것을 보면 과거 한림리와 대림리는 하나의 마을이었다. 19세기 말에 문헌에서 한림이라는 표기가 나타난 것을 보면 이때 들어서 두 마을이 분리되었을 것이다. 대림리보다 작은 마을이었던 한림리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던 것은 우체국과 군수공장이 들어서면서 부터였다고 한다. 또 한림항이 조성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독립적인 마을로서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한림항

## 내동길 / 사가길 / 문화길 | 한림리 마을들

한림리는 행정 구역 상으로 1, 2, 3리로 구분이 되어 있다. 하지만 과거에는 여러 마을들이 공유의 이름을 갖고 있었다. 마을을 지나는 도로명에서 옛 마을들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한림중앙로와 한림로가 만나는 사거리에서 남쪽으로 나 있는 **내동길**은 내동(內洞)의 이름을 딴 것이다. 한림2리의 마을인 내동은 250년 전쯤 사람들이 들어와 살면서 마을이 생겨났다고 한다. 숲이 우거져 있는 환경에서도 밭을 만들고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생활했다고 전한다. 이후 안동네라고 불리다가 내동이 되었다.

**내동길** 서쪽에 있는 **사가길**은 사가동(四街洞)의 이름을 반영했다. 사가길은 한림로에서 시작해 한림해안로로 이어져 한림항 동쪽 끝에 닿는다. 일제강점기 때는 이곳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었던 변화가였다고 한다. 지금도 중앙상가와 대형마트가 있어 상권이 발달해 있다.

사카길 서쪽에 있는 **문화길**은 문화동에서 나온 이름이다. 문화동 주변은 과거에 나무로 우거진 동산이었다. 바닷가 쪽에 모래사장이 있어 바다를 터전으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사람들이 주로 모여 살았다고 한다. 이후 한림항이 들어서면서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많은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오늘날 한림항은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던 명월포를 대신하여 제주 북서쪽 지역의 대표 항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한성길 / 문교길 / 한근길 | 한림리 마을들

문화길 남쪽으로 이어지는 **한성길**은 한성동의 이름을 반영한 길이다. 한림읍주민센터에서 시작해 한림로와 한림중앙로를 잇는다. 이곳은 예전에 모래동산이 언덕을 이루고 있었다고 한다. 옛 명칭은 소리질동네였다고 하는데 이후 외전동이라고 부르다가 한성동이 되었다. 한림중앙로에서 시작해 한림여중 앞을 지나는 **문교길**은 문교동(文校洞)의 이름에서 따왔다. 이 마을은 많은 비가 내리면 물이 고이는 곳이라 ‘물왓’이라는 별칭으로 불렸다고 한다. 20세기 중반에 사람들이 들어와 살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는데 이후 학교와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중심가가 되고 있다. 한림초등학교 앞에서 한림로와 만나는 **한근길**은 한근동(翰根洞)의 이름을 반영한 것이다. 이 주변은 옛날에 관청에서 관리하는 밭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관전밭 동네라고 불렸었다.

## 고도물길 | 고도물



고도물

한근길 서쪽에는 한림해안로와 한림로를 이어주는 **고도물길**이 있다. 이 길은 근처에 있는 고도물을 상징하는 의미이다. 이 물은 옛날 한림리 지역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던 용천수였다. 마을의 아낙네들은 이곳에 모여 빨래를 하며 담소를 나누었고, 무더위가 찾아오면 시원하게 목욕을 하기도 했다. 수도가 설치되지 않았을 때는 이 물을 길어다 식수로 사용했다. 지금은 대부분의 일을 집에서 해결해서 옛날 처럼 사람들이 모여드는 일은 좀처럼 없지만,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흐르는 물은 과거의 소박한 추억을 기억하게 한다.